

**사설**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를**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서정대 스님이 지난 14일 총무원장을 공식 사퇴함에 따라 후임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각 학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헌종법에 따라 오는 2월 24일 신임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야흐로 선거 분위기가 암중에도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임 총무원장이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동국대학 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전과 달리 별다른 대과없이 자의로 원장직을 사퇴했기에 후임 총무원장 선거는 조계종단 안팎의 촉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촉제여야 할 총무원장 선거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기쁘기는커녕 조마조마하기 그지없다. 혹여 잘못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청정한 승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못하고 권력욕에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세속인들도 부도덕하게 지탄하는 금품선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 등등 노파심에 씩씩이 있다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다. 과거 수많은 선거가 폭력과 금품으로 얼룩졌거나 비방과 불신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에 더욱 그렇다.

승가의 근본은 화합과 청정함에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승가의 구성원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인생의 독소들을 여이고, 무욕과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사표이다. 지혜와 실천을 구비하였기에 언제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다. 따라서 몸, 입, 마음을 화합시키고 더하여 계율과 보시와 견해를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 총무원장이든 아니면 어떠한 종단의 직책이든 그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와는 달라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불국토건설에 좀더 앞장서겠다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며, 대내적

으로는 중생, 국토, 부처님,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종단 내외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불교계가 어떠한 수행과 중생제도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대답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선거와 관련된 매직, 매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폭력과 비방, 흑색선전이 제 절을 만난 듯이 활개를 쳤다. 불법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역대의 조사들이나 교단을 위해 헌금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 없는 무명 제가자들의 공덕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기에 불인과 회의가 우리들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문화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종교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깨달음을 논하기에 앞서 종교 역시 사회의 한 구성요소이며, 사회를 떠나 어디에도 존립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림하는 불교, 대중과 고통을 함께하지 않는 불교에 더 이상의 갈채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전근대적인 안목과 역사적식을 지니고 있는 조계종단 내지 한국불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출마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은 천천백년 한국불교사의 정통성과 불교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 통칭되는 21세기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 역시 막대하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한 종파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한국불교 문화의 향방을 결정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 말할 수 있다.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모습 속에서 만인이 찬탄과 경의심을 보내는 선거가 되길 중심으로 기대한다.

**현대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쇄인 :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환경예산 절대 부족**

금년 3천56만원...전체의 0.19% 불과

**남북교류·복지분야 대비 현저히 낮아**

사람 수행 환경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조계종 환경예산이 전체 대비 0.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3천5십여만원으로 자체의 0.19%에 머물러,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대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 조계종의 입장과 모순 되는 수치다.

2001년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불교환경 관련 의제 수립을 위해

불교환경연대에 의뢰한 '불교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조계종 환경예산은 26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일반회계 154억 8559만 6천원의 0.17%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의 남북교류(1억900만원), 복지(4억4500만 원) 등 다른 사업과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10년간 환경분쟁이 발생한 사람은 70여 곳(조계종 총무원에 접수된 건만 한정)에 이르지만 해당 사람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 및 보고 시기의 부작질, 교구 본사와의 협의 미이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환경분쟁 사안들을 유형화해 종단에서 대정부 정책개선 사안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단의 환경기구도 환경위원회와 사회부 두 곳 뿐이어서 환경분쟁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종책연구소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정부·종단 환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 교육의 경우 분말사주지연수 통해 이뤄지지만 1시간 남짓한 강의와 토론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승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환경 사안이 대형화되고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종단에서 활발하게 지원·협력하는 관계 설정도 요구됐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은 사무처장은 "예산 총액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나 교구본사 예산 수립시 환경 관련 예산의 의무적 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봉은사, "감사에 협조" 조사특위 소위에 밝혀**

그동안 감사를 거부해온 봉은사가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조사특위의 감사에 협조키로 했다.

봉은사는 22일 오전 현장감사자 봉은사를 찾은 조사특위 소위원회측과 조사방식에 관계없이 감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소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봉인하는 한편,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문화재 보존용 약품 시판**

**문화재연구소·한켄 개발 상품화**

그 동안 애타게 먹었던 고문서나 불화 보존관리에 한 시름 탈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방총·방부제 전문 제조업체인 (주)한켄이 종이나 섬유, 목재류 등 유기물 문화재를 해충이나 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용 약품을 국내 최초로 상품화해 '보존(BOZON)'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내놓았다.

'보존'은 불상의 복장에서 나오는 전직이나 섬유류의 보존상태가 좋은 점에 착안해 복장에 들어있는 약제 중 정향과 팔각회향에서

향 성분을 추출해 낸 것이다. 액체 형태의 방향제(450ml)로 수장고나 서고, 전시설에 간단히 비치해 놓으면 된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m 이내인 공간에 효과가 있으며 지속 기간은 30~40일 정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정용재 연구원은 "중중유물전시관에서 실험한 결과 해충 침입은 100%, 각종 균도 90% 정도 박멸 효과가 있지만 문화재 재질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에 도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임시종회 성원 미달 유회 의원 29명 공명선거 촉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던 조계종 제156회 임시중앙종회가 성원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중앙종회는 재직의원 81명중 과반수인 41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개회가 가능하나, 34명의 종회의원만이 참석했다.

한편, 종회가 유회된 후 29명의 종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등, 청화, 종광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현 종단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종무원 집행부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임정종립 실천과 행정을 당부하며, 출마자도 정책적 비전과 종단의 미래 청사진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빨리어' 등 교육 뒷받침**

클롬보 국제불교회의

'사모파리 니카야' 창립 250주년 기념 국제불교회의가 16~19일 콜롬보에서 열렸다.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등 50개국 대표들은 학자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에 협력키로 결의했다. 또한 불교학과 불교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통언어교육과 문헌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국 대표인 진월스님은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모델로 제시하며, 대승적 불교사회의 실현방법을 제안했다. 김재철 기자

**행차교육원 3월9~31일까지 열려**

**3급 승가고시 올해부터 대폭 강화**

이 확정했다. 4급 승가고시 일수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모두 291명이 지원한 24기 행차교육원은 '사미·사미니율의' 등 9개 교과목과 '일보일배, 삼보일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30일 5급 승가고시가 치러진다. 3급 승가고시는 지난 1, 2회 때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산림 형태와 달리 입고시험과 고시산림 후 2차 시험 등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계율, 복지, 성보관리 등을 교과목으로 한 입고시험에 합격해야만 승가고시산림에 참여할 수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안심 먹을거리절에서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972년 교계 최초로 설립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현대화·대중화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법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불교대학

- ◎ 교계최초 전임교수제 채택 ⇒ 일관된 교육성과
- ◎ 철저한 학사관리 ⇒ 성숙한 불교지도자 양성구원
- ◎ 아낌없는 교육투자 ⇒ 저렴한 교육비 및 장학혜택
- ◎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교과과정 (연간 24과목 240강의)

★ 어렵게 벌심한 불교공부 따져 보고합니다. 어디에서? 30년 전통의 대원불교대학에서! ★

◎ 교과과목 및 강의 안내(본 교과과정은 1년제입니다)

담당교수	강의전개 내용(연간 24과목 240강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봉수교수 (동국대 교수)	부처님 초기경전 및 빈야경, 법화경, 와엄경등의 대승 경전을 통한 불교교리의 근본이해를 돕는다	초기불교의 이해	초기대승불교	초기불교원전강독	초기대승 불전강독
여경우교수 (동국대교수)	부처님 열반 후 논의 되는 부파불교, 중관, 유식등의 교학적 이해와 불교의 중국전래로 형성되는 천태, 화엄, 선, 영토의 사상을 집중탐구한다.	부파불교의 이해	중기대승불교사상	후기대승불교사상	중국불교 교학사상
김중욱교수 (동국대교수)	불교사상과 타종교 및 서양철학등을 대비시켜 본교가 지닌 현대적 이해를 조망하고, 불교특유의 우주론, 시간론과 인간론을 고찰하며, 불교에 담긴, 인신론적, 심리학적의미를 살펴본다.	불교와 기독교	불교와 철학	불교종교론	불교의식론
고영섭교수 (동국대교수)	불교가 각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어떻게 조화되어 거대한 사상문명을 형성해 왔는지 정치, 교육, 사회, 계도 등 각종 사건의 입장에서 열거하여 분석한다.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일본,동남아불교사
마일운 스님 (주요부흥문화개척50인승려교수)	마일운 스님으로부터 불교전통의식을 이수한다.	불교전통의식실수		불교전통의식실수	
김범준법사(대원외)	전통불교의식을 보다 대중적인 한글로 표현하여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한다.		우리말 의식실수		우리말 의식실수

◎ 모집과정 및 전형

모집과정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법사과정 정규과정 교양과정	출강 00 명 통신 00 명	-.계제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가 -. 대승불교지도자 기질 보유자	-.서류전형 (소정양식) 1부 -. 입학자 개별통지
인터넷	사이버 과정 00 명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3월 2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수시모집
- ◎ 강의시간 : 주 3일 출석 (주간) 오전 11시 ~ 오후 3시 (화,목,금) 불교전통의식실수(마일운스님) : 금요일 오후 6시 40분
- ◎ 개강일시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입 학 식 : 2003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법사고시 합격자), 포교당 종교법인보호, 동국대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 문의처 : 본대학교무과 (02) 754-1613, 773-9171 FAX (02)756-7258 홈페이지 주소 : WWW.idaewon.or.kr 주소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大圓佛敎大學**